

# 송하진 도지사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서'

전북도·시·군·단체 등 21일까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 추진

전북도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2일 까지 시·군과 도내 기관·단체가 함께 하는 온누리 상품권 구매행사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범도민적으로 추진에 나섰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7일 군산 역전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온누리상품권과 군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하여 직접 장보기를 했다.

이날 전통시장을 찾은 지역민들에게 "평상시에도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주민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청 부서별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전 직원이 자매결연시장에 나가 장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4개 시군, 38개 시장에서도 공공기관·단체·기업체 등의 직원 7,200여명이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전통시장에서 점심먹는 날을 추진하여 시군과 여러 기관 단체가 전통시장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추석을 맞아 군산 신영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는 시장별 특성에 맞는 가을축제, 문화행사, 전통문화체험, 경품이벤트 등 시장별로 다채로운 행사를 가지고 있어 고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송 지사는 "우리네 전통시장이 시설 현대화 등을 통해 어느 대형마트 부럽지 않게 좋아지고 있다"며 "한시적인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가 아닌 전통시장 이용을 생활화하여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 국회 방문 국가예산 확보 총력

황인홍 무주군수는 17일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유송열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이종현 기획조정실장 등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사진은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찾아 예산안심의를 건의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9면)

## 전북도, 쌀·밭 등 직불금 추석 전 지급

쌀 9만3천농가 1335억원 · 밭 7만농가 304억원

전북도는 농업인 169천명에게 농업직불금 1,658억원을 추석전 9월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통상 12월에 지급하였으나 추석 전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경영비 인상 및 재해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소득안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다.

쌀 고장직불금은 논 13만3000농가(13만3000ha)에

1,335억원을 지급한다.

쌀직불금 지급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의 경작자이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밭직불금은 7만명(6만4000ha)에게 304억원을 지급하는데, 1ha당 단가 4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39억원이 증가했다.

/김진성기자

## 전북선관위, 추석 앞두고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특별단속

전북선관위는 17일 추석을 맞아 정치인,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특별예방 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

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전북지역 109개 지역 조합에 기부행위 제한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조

합 임직원 등이 밥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 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여력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김진성기자

## 미리보는 '평양 정상회담' ... 文대통령, 어떤 곳 방문할까?

평양 국제공항에서 첫 일정... 영빈관 · 노동당 청사 회담장 거론  
2000년 환영공연 · 만찬... 인민문화궁전, 만수대예술극장서 진행  
둘째날 만찬 대동강 수산물 식당 거론... 숲 "평양 최고식당" 극찬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어떤 곳을 방문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첫 발을 내디딜 장소는 평양국제공항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 오전 8시40분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평양 국제공항에 오전 10시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곳에서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번째 만남의 첫 시작을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리모델링(구조변경)을 마친 평양국제공항은 평양 시내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평양 시내까지 차로 30분 정도 걸린다. 북한 유일의 국제공항으로 김 위원장의 지시로 지난 2015년 현대식 대규모 건물인 제2청사를 건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만남과 달리 제2청사쪽 활주로부터 공식 환영행사가 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후 바로 문 대통령은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해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영빈관은 지난 2000년과 2007년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묵었던 곳으로 이곳에서 정상회담도 진행된 바 있다.

백화원 영빈관은 화강암으로 지어진 3층 건물로 국빈급 외국사절의 전용숙소로 사용된다. 분수대가

설치된 인공호수가 마련됐으며 앞에는 대동강이 흐르고 건물 뒤편으로 숲이 있어 조경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지난 3~6월 리모델링을 마쳤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 7월 방북해 이곳에 머문 바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두 차례의 대북 특사단 방북 당시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이들을 만났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이 노동당 청사에서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평양 시내에 있는 옥류 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등을 돌아볼 예정이다.

옥류 아동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종합 의료봉사 시설로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신축된 건물이다. 6층 규모 건물에 180여 명의 의사가 진찰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은 평양 문수구역에 있는 북한 최고의 전문음악인 양성대학이다.

첫날 회담 종료 후 환영예능 공연 장소와 만찬 장소도 관심이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방북 첫날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전통 무용·기악곡을 짜여진 '평양성 사람들' 공연을 관람하고,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측이 주최한 환영 만찬에 참석한 바 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목란관에서 공식환영 만찬을 가졌다. 목란관은 5000

평 규모의 외빈과 고위층 전용 연회장이다.

이어 둘째 날 오전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동안 김정숙 여사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볼 예정이다. 이곳은 북한 청소년의 예술체육, 과학교육 분야의 방과 후 활동을 교육하는 기관으로 지난 2014~2015년께 개보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와 함께 이곳을 방문해, 학술활동을 참관하고 학생들의 예술공연을 봤다.

둘째 날 오전은 평양 옥류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옥류관은 평양 만수대예술극장에 위치한 북한의 대표적인 음식점으로 대동강 옥류교 옆에 있어 옥류관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2층 짜리 한옥 건물로 북한 간부연회와 외국인 접대장소 등으로 이용된다.

이튿날 저녁 환송만찬은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세 부일정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사에 현지 주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을 늘 가는데, 그런 부탁을 북측에 해왔다"며 "그래서 어떤 식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평양 시민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만찬을 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장, 대한민국 탐리더스 대상 수상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장은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뉴스가 주최·주관하는 2018년 대한민국 탐리더스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탐리더스 대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국가관으로 국가발전은 물론 국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등 각 분야별 대상자를 선정 시상하는 상이다.

신갑수 의장은 재선 의원으로써 군민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직접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고,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



영될 수 있도록 군민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 숭선수범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뛰어난 리더십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민주주의 발전과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신갑수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도록 귀를 열어놓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은 현장에서 있다는 믿음으로 현정의 목소리를 직접 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민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